

“정보공개 안돼 초기대응 실패… 지역사회 감염 대비해야”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결과 발표

한국내 메르스 유행 대규모에 복잡...수습에 수주 예상 주중 긴급위원회...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여부 판단

세계보건기구(WHO)와 한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이 한국이 메르스의 지역사회 산발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뢰 강화를 위해 더 활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역사회 발생대비=활발한 의사소통 필요=합동평가단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내) 지역사회 감염의 증거는 없으나 병원에서 감염된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

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내 메르스 유행이 대규모이고 복잡한 상황으로 조치가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는 데 수주가 걸릴 것”이라며 “단기간에 해결될 것을 예상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특히 “국내외 신뢰 강화를 위해 더 활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 평가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열린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며 “반면 휴교와 같은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경우 신뢰

를 저해할 것으로 수습 재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단은 “병원 감염 예방 및 환자 이동 제한, 접촉자 확인 및 추적을 통한 격리 조치, 환자와 접촉자의 여행 제한 등 강력한 공중 보건 조치가 중요하다”며 “감염이 진행되는 동안 해외 여행의 경우 특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의 공중보건기관과 공공 의료시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평가단은 “한국에서 유사한 신종전염병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공중보건기관의 역량 강화 및 감염전문가, 역학전문가 등 인력 양성과 공중보건 실험실 및 임상병실 확대 등에 여러 추가 투자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초기대응 실패 원인 3가지=평가단은 한국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 원인으로

소통 문제와 거버넌스 문제, 지방정부의 자원 동원 문제 등 3가지를 꼽았다.

평가단은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가 제일 중요했는데 이 부분이 초기대응에 실패한 원인 중 하나”라며 “아울러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버넌스가 제대로 확립 안 돼 초창기에 혼란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질병확산 규모에 대한 예측실패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을 동원하는 부분에서 혼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평가단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이 메르스에 감염된 원인 중 하나로 ‘의료소방관행’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메르스에 익숙하지 않았고 일부 병원 응급실이 너무 붐볐으며, 다인병실 등 여러 명의 환자들이 지내는 등 감염에 방통제조치가 최적화되어 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치료를 받으려고 여러 의료 시설을 돌아다니는 의료소방관행과 여러 친구나 가족들이 환자와 병원에 동행하거나 문병하는 문화 탓에 2차 감염이 더 확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벤트 주 긴급위원회=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요건 판단= WHO는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오는 17일이나 18일께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제9차 메르스 긴급위원회를 개최한다.

마거릿 쉐인 WHO 사무총장은 전 세계 전문가로 구성된 메르스 긴급위원회를 소집했으며, 긴급위원회는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등에서의 최근 메르스 진전 상황과 대응 조치 등을 검토하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 PHEIC) 선포 요건이 되는지를 판

단하게 된다고 WHO는 설명했다. 이 회의에는 WHO가 한국정부와 일주일간 메르스 전염 경로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인 결과와 사우디 아라비아 등 메르스가 발병한 국가들의 최근 자료가 보고된다. WHO는 이를 위해 메르스 긴급위원회 소속 전문가와 사우디 아라비아, 한국 등 메르스 발병국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자리를 함께할 수 있는 날짜를 조정 중이며 현재는 17일이나 18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릭 자사라빅 WHO 대변인은 “긴급위원회가 최근 한국 등의 메르스 사태를 논의하고 현 상황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추가 감염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전남 자택격리자 26명 음성판정

62명 검사 진행...접촉자로 관리 안돼도 증상 있으면 검사

전남도 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4일까 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택격리된 주민 87명 가운데 62명에 대해 메르스 검사를 진행중이거나 완료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검사 대상을 밀접접촉자 중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전남도 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보성 확진환자 A(64)씨와 접촉한 마을주민 45명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보 받은 밀접접촉자 42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도 대책본부는 14일 “13일 전남도 점검반 4개반 18명을 편성해 자가 격리자의 일대일 밀착검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선별진료소가 매뉴얼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확진환자인 A씨와 접촉한 가족과 직장동료, 마을주민 45명 중 36명에게 가검물을 채취,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으며, 나머지 9명에 대해서도 가검물을 채취하고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통보한 접촉자 중

자택격리자 42명 가운데 26명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이들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접촉자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동지역을 최근 방문했거나 환자발생 병원, 환자경유 병원 등을 다녀오는 등 의심 사유가 있고 발열, 기침증세가 있는 경우에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 대책본부가 지금까지 밀접접촉자 145건을 검사한 결과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진됐고, 103건은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41건은 현재 검사 진행중이다.

윤현석기자hadol@kwangju.co.kr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메르스 상담소가 광주시 각 자치구 보건소에 설치됐다. 14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앞에 설치된 메르스 상담소에서 보건소 직원이 주민의 체온 체크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 안심병원’ 광주 전남대병원·서광병원

북지부 선정...전남, 순천 성가톨릭병원·목포 세안종합병원 등 5곳

보건복지부는 14일 “메르스 감염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에 87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선정됐으며,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주는 전남대학교병원과 서광병원 2곳이며, 전남은 성가톨릭병원(순천), 세안종합병원(목포), 순천 한국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중앙병원 등 5곳이다.

국민안심병원이란 병원을 통한 메르스 감염을 우려하는 일반 환자를 위해 호흡기 질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는 병원이다.

이들 병원을 찾는 호흡기질환자는 외래, 응급실 대신 별도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받고 입원시에는 1인실이나 1인 1실로 입원하게 되며, 중환자실도 폐쇄환자는 메르스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병원 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안심 신청병원은 격리시설 마련 등의 준비를 거친 후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안심병원 운영에 들어간다. 북지부 관계자는 “신청 병원에 자가 점검표를 배포해 안심병원 조건을 충족했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87곳 모두

일단 지정 처리가 될 것”이라며 “병원협회 등과 공동으로 향후 시행 여부를 점검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요구 또는 지정 취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신청 병원이 늘어나고 있어 2차 신청을 받아 다음주에 추가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며 “메르스 확진자를 위한 메르스 치료병원과 의심자를 위한 노출자 진료병원들도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고 실제로 이번에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메르스 의심증세’ 한국 남성, 슬로바키아 병원 입원

한국인 남성이 13일(현지시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사 증세를 보여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 병원에 입원했다.

페트리 스타노 마타소브스가 브라티슬라바 대학병원 대변인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병원에 입원한 한국인은 38세로 설사와 고열, 피부병변 등 메르스 유사 증세를 보였다”면서 “혈액검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입국했으며, 북부 질리나 지역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의 하도급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슬로바키아 보건당국은 전했다. 앞서 이 남성은 질리나 지역에서 특수시 설을 갖춘 브라티슬라바 대학병원으로 경찰이 호송한 구급차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트리 부블라 슬로바키아 보건부 대변인도 “메르스 유사 증세를 보인 외국인 1

명을 질리나 지역에서 특수시설을 갖춘 브라티슬라바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며 “우리는 이 남성의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르틴 카프스니 질리나 보건책임자는 “이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호텔에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슬로바키아 보건당국과 경찰은 현재 이 남성과 접촉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거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전망과 전라남도 미래가치 분석

현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낱알이 밝히고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부동산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장 소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5. 6. 16(화)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의/내/용

1. 상반기 부동산 시장 결산 및 하반기 전망
2. 광주·전남 개발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자처 매물 분석 및 공개
3. 15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응
4. 부동산 가격상승 핵심지역 분석
5. 돈되는 부동산 투자법 공개
- 가장 미래가치가 있는 땅은 무엇인가?
6. 소액투자자 월세받는 비법 공개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 김성

전산직(정규직)직원 채용

글로벌 세상을 선도하는 동강대학교에서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직원을 채용합니다.

초빙분야 및 인원

채용 직군	채용 분야	인원	자격조건	비 고
기술	전산직	0명	- 전문학사학위 이상인자 - 프로그래밍(CS/웹) 개발 및 유지보수 2년 이상 경력자 - 개발 툴 파워빌더 사용 가능자 - JAVA, PHP 개발 가능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DB 관련 자격증 취득자 우대

접수기간 2015. 6. 12(금) ~ 6. 17(수) 17:00까지

접 수 처 우리대학교 사무처 행정지원팀
☎(062)520-2211~2

세부사항 우리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kc.ac.kr) 직원채용공고 참조

동 강 대 학 교
(500-714)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